

2019 서순실 심방 본풀이 채록

맹감본풀이

맹감본풀이>들어가는 말미

천왕맹감(天皇冥官), 지왕맹감(地皇冥官), 인왕맹감(人皇冥官), 동(東)이 가민 청맹감(靑冥官), 서(西)이 가민 백맹감(白冥官), 남(南)인 가민 적맹감(赤冥官), 북(北)이 가민 흑맹감(黑冥官), 중앙(中央)은 황신맹감(黃神冥官), 산으로 산신맹감(山神冥官), 물로는 요왕맹감(龍王冥官), 베론 가민 선왕맹감(船王冥官), 농수(農事)집엔 제석맹감(帝釋冥官), 책 보는 집인 책불맹감(冊佛冥官), 불도(佛道)집인 불도맹감(佛道冥官), 전생(前生) 그르친 집인 당주맹감(堂主冥官)입네다. 일흔오덱(七十八) 도맹감(都冥官)님전~ 난산국은¹⁾ 어딴네까.

맹감본풀이>본풀이

옛날 옛적이라. 주년국땅~ 소스만이가 낡데다. 세 술 나난 어멍 죽어불고, 다섯 술 나난 아방 죽어불고, 밥 빌어단 죽 썬 먹영 덩겜시난, 장승데감뜨님 만났구나. 흘목²⁾ 심어건 덩기는 게 남녀구별법(男女區別法)을 알았구나. 찬물 혼 사발 떠 놓안 입장갈림³⁾ 허난, 아기는 낫는 것이 미르끄르 보리끄르 오망 속속 솟아난⁴⁾ 가난하고 서난허니 아기덜은~ 베가 고파 비세⁵⁾ 올었구나. 허를날은 소스만이 각시가 쉬흔데 자 수페머리 끊영,

“장에 강 돈 석 냥 받앙 읍서. 쓸 사당 배고픈 아기덜 맥영⁶⁾ 살게.”

“어서 기영⁷⁾ 협서.”

장에 간 돈 석 냥을 받안 오단 보난~, 사람 소리가 웅성웅성 소리 나고 사람 소리 나는 딴간 보난, 사름덜은 도리도리 모였구나~. 무스 걸 놓아근 사렌 헤염신곤 허난 부지땡이⁸⁾ 님은 걸 풀암구나.

“저건 뭇이엔 혼 거짜?”

“요건 마세조총이라.⁹⁾ 느는 썩에 불을 허민 백발백중(百發百中), 떼는¹⁰⁾ 노루에 불질 허민 백발백중 뉘민 궤기는 먹고 가죽은 풀민 가난한 집이 부제(富者)뉘네다.”

허난,

“얼마 받을 거짜?”

“돈 석 냥을 받으쿬덴.”

헤연, 웃득지에¹¹⁾ 들어 메연 집이 오라간다. 소스만이 각신 아기덜은 미르끄르 보리끄르 난 아기덜 베가 고파건,

1) 난산국은: 본디 태어난 곳은 그 내력은 본풀이는.

2) 흘목: 손목.

3) 입장갈림: 혼인(婚姻).

4) 솟아난: 태어난.

5) 비세⁵⁾치: 비세같이. 비세는 제비보다 조금 큰 세로 비가 올 듯할 때 잘 운다고 함.

6) 맥영: 먹여서.

7) 기영: 그렇게.

8) 부지땡이: 부지깽이.

9) 마세조총: 마상조총(馬上鳥銃)이라.

10) 떼는: 뛰는.

11) 웃득지에: 어깨 죽지에.

“밥을 줍서.”

비세?치 울엄구나. 어서 집으로 들어간다 보난 어깨에 부지땡이 닳은 걸 매연 오난.

“요 어른아, 돈을 줍서. 쌀 사당 아기덜 밥 헨 맥이쿠덴.”

허난,

“쌀데신 요거 상 오그라.”

“요건 뵈이우꽈?”

“마세조총인데 뵈는 노루에 백발백중이로구나. 노는 썩에 불을 노민 백발백중 맞힌덴.”

허난,

“요거 무신 말이꽈? 요 어른아, 세엄¹²⁾ 옛인 어른아, 아기덜 밥서. 비세?치 울엄수께.”

그걸 옷독지에 둘러메연 굴미굴산, 아야산, 신산곶을¹³⁾ 도올라건 노는 썩에 불질 허난 허탕 (虛蕩)한다. 뵈는 노루에 불질 허난 허탕 헤엿구나. 그날 밤은 산에서 자게 뵈난,

“드르릉 주년국에 소스만아, 땡구르르~ 주년국 소스만아.”

세 번 불르건 대답 헉젠 헤난, 두 번만 불르구나. 뵈날 아적 먼동금동 데명천지(大明天地) 붉은 날이 뵈엿구나. 간밤이 불러난 디로 간 보난 소스만이로구나. 백년조상(百年祖上)이 잇입 데다. 백년조상이 곧는 말이,

“소스만아, 나는 백정싱이 아들인데, 노리각록¹⁴⁾ 사농 오랏다건 총은 나가 쓰던 총이고, 나를 모성 강 너네 집이 연양상고팡이 모시민, 부제팔명¹⁵⁾ 뵈와주크덴.”

허난,

“어서 기영 헉셴.”

헤연, 소스만이 백년조상을 가져건 내려오라간다. 먼 올레 몰쿠실낭에¹⁶⁾ 걸어두곡, 옛날도 산천(山川)이 좋민 즈부(子婦)가 잘 뵈는 법이라, 안드로 들어강 큰각시안티 사실말을 ?난, 소스만이 각시가 멘보선 바람에 나간 보난에, 몰쿠실낭에 백년조상이 알더레 떨어지연,

“땡구르르 소스만아, 소스만아.”

헤염구나.

“아이고 조상님아, 어떻힌 일이꽈?”

그 법으로 옛날도 오뉴월 뵈영 몰쿠실낭 알에 누엿다. 으식헉민 포 떠는 병을 엿는 법입네 다.

소스만이 각시 집이 들영오란 상물¹⁷⁾ 솟아 놓안 모욕제계(沐浴齋戒) 헤연 연양상?팡에 올리난, 뵈날 부떠 노리각록도 백발백중, 노는 썩에도 백발백중 뵈난에 어서 가족은 풀고 궤긴 먹곡 허난, 가난허던 소스만이 청기와 집을 출려 놓아건 천하거부제(天下巨富者)로 잘 살암 구나.

헉를날은 소스만이 노리각록 사농¹⁸⁾ 잡으레 가난, 썩 헉 머리, 노루 헉 머리 못 잡앗구나. 필하곡절(必有曲折)허다. 집더레 오단 보난 백년조상은 옆뵈디 나왔구나.

“아이고 조상님아, 무사 베꿏디¹⁹⁾ 나옴데가?”

12) 세엄: 셋.

13) 굴미굴산 아야산 신산곶을: ‘매우 깊은 산’의 뜻으로 씀.

14) 노리각록: 노루.

15) 부제팔명: 부자가 되어.

16) 몰쿠실낭에: 먹구슬나무에.

17) 상물: 향물.

18) 사농: 사냥.

19) 베꿏디: 바깥에.

“너네 각시가 너 이름을 부르난, 나를 네쫓가라.”

“죽을 일이 잇이민, 살 일은 모름니쎈.”

허난,

“넬라그네~ 집이 가건 상물 숲양 모옥제게 헤여근에 굴미굴산, 아야산, 신산꽃을 도올라가 테역단풍²⁰⁾ 좋은 딜로 가건, 우으로 쪽지팽풍(-屏風),²¹⁾ 네 귀 접상(摺床) 팽풍 헤연, 주년국 스사만이엔 이름 씨여근 밥도 세 그릇, 술도 석 잔, 초신 세 베, 출령 백보(百步) 베끗디 업덴²²⁾ 흐곡, 너네 각시라건 천도천왕, 지도지왕, 인도인왕, 상간지오륜지법으로²³⁾ 헤여근 어서 큰긋허라.”

그와 같이 큰긋을 헤엿구나. 데시왕(大十王) 연맞이가 넘어갑데다. 소스만이도 산에 간 업데난, 저싱 삼처사(三差使)가 출려근 와락치라, 와락치라 내려간다. 불빛 보아전 강 보난 베고판 밥 먹고, 신발 떨어지언 세(新) 신발 신고,

‘누게가²⁴⁾ 우리 생각 헤연 출려났인고?’

팽풍더레 보난, 주년국땅 소스만이 이름을 적언 잇엇구나.

‘앗차불사. 우리가 소스만이 데리러 오논디 소스만이 출려 논 음식을 먹엇구나.’

“소스만아, 소스만아, 너를 데리레 오랏구나.”

“아이고 갈 일이우다만은 우리 집이 강 우리 각시덜 애기덜 한번 마지막으라도 보양 가쿠덴.”²⁵⁾

허난,

“어서 기영 허라.”

집인 오란²⁶⁾ 보난 큰긋 헤영 시왕맞이 헤엿구나. 천오 방액 올리난에 어서 소스만이가~ 저싱 삼처사에 방액(防厄)을 올리난,

“너야, 소원(所願)이 뭐가 잇겟느냐? 너영 난 혼 년에 난 동갑(同甲)이 잇겟느냐?”

“잇읍네다.”

“누게냐?”

“오만입네다.”

“너 대신 오만이를 데령 가민.”

헤연, 저싱을 가니,

“너는 인간에 간 뇌물(賂物)을 받안 오랏구나.”

목에 큰칼을 씨앗구나. 목에 큰칼을 씨우난 그날 저녁에 자심판관(左審判官), 우심판관(右審判官), 책갑(冊匣)지기 넘어가다근,

“소스만아, 소원 한마디만 굴라.”

“경 흐건들랑 오늘밤에 이몽성이 염라데왕(閻羅大王)님 깊은 즘을 자건, 주년국땅 소스만이 이름 알에 열십 자 알에 보민 석 섬 자가 잇습네다. 석 섬 자를 열십 자를 놓아 줍센.”

허난, 삼십이로구나.

“삼십이난 열십 자 웃터레 세 하나만 올려놔 줍센.”

20) 테역단풍: 잔디에 단풍이 든 모양.

21) 쪽지팽풍(-屏風): 쪽을 내어 칸을 가른 병풍.

22) 업덴: 엮드려.

23) 상간지오륜지법으로: 삼강오륜법(三綱五倫法)으로.

24) 누게가: 누구가.

25) 가쿠덴: 가겠다고.

26) 오란: 와서.

허난, 그 우터레 춤 먹을 춤 붓에 짓정 우터레 올려 놓니, 모릿날 스오시가 됩니 염라데왕
님이,

“어서 소스만이 목에 큰칼을 처형허렌.”

허난,

“염라데왕님아 저싱 문서(文書) 한번만 확인(確認)헤여 줘센.”

헤엇구나.

“저싱 문서 한번 확인 헤여 줘센.”

허난, 날아가는 세 혼 자를 굶어 놓앗구나. 삼십(三十)이 아니라 삼천(三千)이로구나. 그떼에
소스만이 두갯이가 아방, 어멍 식계²⁷⁾ 안 헨 죄로 저싱 삼처서를 불렀인디, 저싱 삼처서에 방
엑 올리난 소스만이가 죽을 목심을 살아나고, 소스만이가 죽을 목심을 살아나난에 어서 큰칼
에 하옥시겐단 살아났습네다.

옛날 동방색(東方朔)이 삼천년(三千年)을 사난 강림이가 데령 갓십네다. 강림이가 데령 저싱
가난 옛날 광곽(郭璞)이²⁸⁾ 시아방, 주요기는 메누리, 시아방, 메누리가 상통천문(上通天
文)²⁹⁾ 기지역신을 네엇구나. 상통천문 기지역신허니, 메누리를 죽이젠 저싱 삼처스를 불르난
메누리는 벌써 알앗구나. 처서님 올만 허난 올레간 독³⁰⁾ 혼 무리에 날게에 주요기엔 이름 씨
난 저싱 데려간 법이 잇습네다예~. 소스만이 난산국입네다예~.

27) 식계: 제사(祭祀).

28) 광곽(郭璞): 중국 서진(西晉) 말에서 동진(東晉) 초의 학자.

29) 상통천문(上通天文): 천문(天文)을 잘 앎.

30) 독: 닭.